

1.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1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1 Naaman, commander of the army of the king of
Syria, was a great man with his master and in high
favor, because by him the Lord had given victory
to Syria. He was a mighty man of valor, but he
was a leper.

강한 용사였으나 나병환자

2. 고통가운데 전환점을 주십시오

2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에, 그 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 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2 Now the Syrians on one of their raids had carried off a little girl from the land of Israel, and she worked in the service of Naaman's wife.

3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3 She said to her mistress, “Would that my lord
were with the prophet who is in Samaria! He would
cure him of his leprosy.”

2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에, 그 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 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2 Now the Syrians on one of their raids had carried off a little girl from the land of Israel, and she worked in the service of Naaman's wife.

“어린 소녀 하나”

3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3 She said to her mistress, “Would that my lord
were with the prophet who is in Samaria! He would
cure him of his leprosy.”

9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어 섰다.
10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 강으로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9 So Naaman came with his horses and chariots
and stood at the door of Elisha's house.

10 And Elisha sent a messenger to him, saying,
“Go and wash in the Jordan seven times, and
your flesh shall be restored, and you shall be clean.”

11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11 But Naaman was angry and went away, saying, “Behold, I thought that he would surely come out to me and stand and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his God, and wave his hand over the place and cure the leper.

10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 강으로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10 And Elisha sent a messenger to him, saying,
“Go and wash in the Jordan seven times, and
your flesh shall be restored, and you shall be clean.”

3.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십시오

11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11 But Naaman was angry and went away, saying,
“Behold, I thought that he would surely come out
to me and stand and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his God, and wave his hand over the place and cure
the leper.

개역개정

11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적용 및 결론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삽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